

쌀 등급 수분과 싸라기 함량 따라 결정

11월 1일부터 '쌀 등급표시제' 시행... 종전 '특·상·보통'에서 '1~5' 등급 세분화

등급검사 안하면 '미검사'... 내년부턴 단백질 함량도 표시

고성군은 11월 1일부터 쌀에 대한 품위 및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쌀 등급표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쌀 등급표시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곡표시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지난 4월 6일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찰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맷쌀 제품 포장지에 품종 및

원산지과 함께 '품위 및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품위 및 품질'은 수분과 싸라기 등의 함량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종전의 '특·상·보통' 3등급에서 '1~5'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 '미검사'에 표시토록 했다.

또 내년 11월 1일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6.1% 이하), 우(6.1~7.0%), 미(7.1% 이상) 등 3등급으로 나뉘지며, 검

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은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아울러 가공용 쌀은 '가공용 쌀'로 표시하고,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쌀 등급 표시는 내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의 함량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

거진중고 학생들이 현장견학

전기안전공사 북부지사·HJ산전 초청



지난 20일 HJ산전 공장을 방문한 거진중고 학생들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 북부지사(지사장 박남식)는 (주)HJ산전(대표 홍성권)과 합동으로 지난 20일 거진종합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64명을 초청해 전기제품 생산 공장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지역사회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이날 현장견학은 오전에 HJ산전의 주력 생산품인 차단기류와 수·배전반 생산라인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오후에는 '2011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을 관람했다.

이날 특히 홍성권 HJ산전대표는 회사소개와 아울러 자신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린시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늘의 기업을 설립한 경험담과 더 큰 미래의 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꿈을 들려줘 학생들에게 감동을 줬다.

학생들은 이날 현장견학을 통해 신성장 동력 에너지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수집해 견문을 넓히는 시간이 됐다. 원광연 기자

4개 품목 브랜드품질인증(Q마크) 받아

한국관광평가연구원, 고성태·해양심층수 코팅쌀·아라김치·건봉다시마장

우수 농수특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주는 (사)한국관광평가연구원의 브랜드품질인증(Q마크)을 받은 고성군 대표 특산품들이 소비자를 찾아가고 있다.

이번에 Q마크를 획득한 특산품은 (사)강원고성명태생산자협회의 고성태, 토성농업협동조합의 해양심층수 코팅쌀, (주)아라김치의 해양심층수 아라김치, 건봉다

시마장식품 영농조합법인의 건봉다시마장 등 4개 품목이다.

이들 특산품은 지난 10월 14일 해당업체와 협의를 거쳐 10월 17일 브랜드품질인증(Q마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사)한국관광평가연구원이 개최하는 전국 농·수특산물 전시회 참여기

회가 부여되는 혜택을 받고, 언론사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로 인지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사)한국관광평가원은 2004년 정부의 문화관광 진흥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문화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 식음료 및 외식 문화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최광호 기자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삼성전기(009150)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발생 후 글로벌 증시는 대혼란의 과정을 겪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공조를 통한 각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은 필사적이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아직 경기회복 징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 경제의 현주소다. 게다가 지금은 유럽까지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세간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지만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수면위로 급부상, 최근까지도 글로벌 증시의 약세를 이끈 주역이 되었다.

재정위기 해법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협의가 지속되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속속 발표되자 증시 변동성은 주춤해진 상태다. 게다가 위기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해지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10월 한 달간 반등이 이어지면서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

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장에 대한 방심은 금물이다.

유럽은 화폐통합을 바탕으로 연합체가 출범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재정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재정적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궁극에는 재정통합

까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연합체로 거듭날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방안은 결국 임시 처방에 불과할 따름이다. 명심하기 바란다.

수년 전부터 환경파괴로 인한 이상 기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급기야 각국 정상들은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책을 만들고 합의했다. 경제발전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이 가져온 후유증이 나타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높아질 것이다. 친환경 제품만이 향후 시장에서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지금 미래 에너지 선점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지금은 석유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되는 과도기에 살고 있다. 필자는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많다.

특히 저비용 고효율을 자랑하는 LED는 향후 시장성이 무궁무진하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력 덕분에 형광등이 사라질 날도 머지않았다고 단언한다.

삼성그룹 계열사로 우수한 재무구조와 매출 안정성을 확보, 제2 도약의 날개를 펴고 있는 IT 전자부품 제조회사인 삼성전기(009150)를 주목하기 바란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